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납·량·대·결

傳說의 故鄕

Vs

혼

납량특집 '2009 전설의 고향'제작발표회. 왼쪽부터 김지석, 이영은, 전혜빈, 장희진, 김태호, 조윤희, 정겨운, 김형미, 지성우.

익숙한 공포… 그래도 '오싹'

'전설의 고향' 10일부터 5주간 10부작으로 안방 노크

구미호, 흡혈귀, 목각귀, 달걀귀, 가면귀….

KBS 2TV '2009 전설의 고향'이 내세운 주전 선수다. 이들이 '결혼 못하는 남자'의 후속으로 10일부터 5주간 월·화요일 오후 10시에 차례로 안방을 찾는다.

5일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09 전설의 고향' 제작발표회에서 제작진은 "익숙한 틀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겠다. 귀신의 사연, 한과 용서, 권선징악 같은 전통적 스토리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년 만에 부활해 평균 시청률 17.7%를 기록한 '전설의 고향'은 올해 단막극 10개로 구성된다.

1편 '혈귀'에서는 김지석이 '전설의 고향' 최초로 흡혈귀로 나서 이영은과 호흡을 맞춘다.

김지석은 "분장용 송곳니가 너무 세서 실제로 흡혈할 때 상대 배우를 물면 살이 뚫릴 수도 있어 그냥 살짝 대기만 했다"며 "흡혈귀를 연기하며 여러 가지로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런 흡혈귀와 사랑에 빠지는 여인을 연기한 이영은은 "현대극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공포 장르를 이번에 만나게 돼 의미 있었다"며 "김지석 씨가 무는 연기를 안 아프게 잘해줬다"고 했다.

2편 '죽도(竹島)의 한(恨)'(극본 문은정, 연출 김정민)에서 주인공을 맡은 정겨운은 "공포극을 찍으니 나도 귀신을 보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문경에서 촬영할 때 섬뜩한 경험을 했다. 숙소에서 샤워하는데 물과 불이 동시에 꺼져 정말 너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3편 '계집종'(극본 박형진, 연출 홍석구)의 김태호는 지난해 '구미호' 편에 이어 두 번째로 '전설의 고향'에 출연한다.

"내가 좀 유약해 보이는 모양이다. 여자 귀신을 보고 무서워하는 연기를 잘한다고 하시더라"는 그는 "여배우들이 한 맺혀 울부짖는 연기를 할 때면 너무 무섭다"며 웃었다.

'목각귀', '씨받이', '금서', '조용한 마을'에 이어 내달 1일에는 '전설의 고향'의 영원한 대표 주자 '구미호'(극본 이은상, 연출 신현수)가 찾아온다.

지난해 박민영에 이어 올해 구미호를 맡은 전혜빈은 "역대 구미호를 연기한 여배우들이 모두 잘됐다는 말이 있어 구미호를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쁘다"며 "그런데 촬영을 해 보니 왜 잘되는지 알겠더라.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미호의 가발이 너무 무거워 머리카락도 많이 뽑혔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아직 5분의 1 정도만 진행돼 앞으로 촬영이 더 힘들 텐데 잘 견뎌내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동물의 마음, 양면성을 균형 있게 표현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상대역으로는 안재모가 출연한다.

'구미호'에 이어서는 '달걀귀'와 '가면귀'가 방송된다.

/연합뉴스

색다른 공포… 그래서 '섬뜩'

'혼' 주인공 이서진 "주위에서 자꾸 사고 나니 묘해요"

"드라마가 납량물이라서 그런가. 스태프 자녀들이 자꾸 큰 사고를 당하고 매니저들은 운전하다 길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네요."

탤런트 이서진은 납량특집 미니시리즈 '혼(魂)'(극본 고은님 · 인은아, 연출 김상호 · 강대선)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가 공포물인데 촬영 현장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범죄 프로파일러(범죄 심리분석가)이지만 점점 악마가 돼 가는 신류 역을 맡았다.

그는 "그러나 촬영장 분위기가 어둡지 않아서인지 제가 현장에서 귀신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서진은 자신이 맡은 범죄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생소했지만 직접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으며 다만 프로파일러가 종종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연출자와 배우 이전에 친한 친구 사이인 김상호 PD와 연초부터 이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프로파일러라는 직업과 신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에 '혼'을 기획하던 김 PD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신류 역을 맡게 됐다. 특별히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 건 아니다. 친구(김 PD)와 함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즐거움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고 캐스팅된 사연을 설명했다.

특히 신류처럼 선과 악을 넘나드는 역할을 항상 해보고 싶어 '혼'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서진은 "(냉철한 프로파일러 역을 맡기 위해선) 살을 뺐어야 했는데 다행히도 '이산' 이후 쉬면서 운동을 해서인지 4㎏이 저절로 빠졌다. 만나는 사람마다 4㎏보다 더 빠져 보인다고 해서 좋다"면서 특유의 보조개가 움푹 들어간 웃음을 지었다.

그는 다른 출연진과 나이 차가 나는 점에 대해 "다른 배우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다. 가수 출신 배우도 많아 생전 안 보던 가요 프로그램도 보면서 눈높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촬영장 분위기가 훈훈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혼'과 같은 장르 드라마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름 특집으로 '혼'이 만들어져 반갑고 기쁘다"며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G워너비 출신 채동하

7년만에 솔로 음반

지난해 1월 그룹 SG워너비 탈퇴를 발표한 채동하(28)가 다음달 1일 솔로 음반을 발표한다.

채동하는 2002년 솔로 1집으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2004년 SG워너비 멤버가 됐다. 따라서 그로서는 약 7년 만에 제2집 솔로 음반을 낸 셈이다.

2집을 준비하면서 SG워너비 시절부터 프로듀서로 호흡을 맞춘 유명 작곡가 조영수와 다시 손잡았다.

소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음반은 채동하가 그룹에서 솔로로 다시 독립하는 첫 음반이므로 향후 그의 음악 활동과 결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